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

익산시 농작업 기계화 '속도' …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

익산시가 농작업 기계화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한다.

농작업 기계화로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는 물론 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침체된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농민들의 농작업 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배달운송료 지원 범위(10만원 기준)를 9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1만원 정도의 운송료만 부담하면 농작업 현장에서 기계를 받아 쓸 수 있게 되었다.

영농철을 맞아 3월부터 6월말까지 토·일요일에도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영농철 휴일 근무를 실시해 언제라도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6억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번기 대기자가 밀려 사용순서를 기다려야 했던 인기 기종 105대를 추가 확보하고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한다.

농업기계 세척장도 운영요원 2명을 투입해 농업기계 임대 사용 후 세척하고 반납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함열본소와 동부·남부분소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임대 건수가 5천351건에 이를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영농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효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영세·소농가, 고령·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6억원을 투입해 231 농가를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은 보행관리기, 동력배토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150만원 한도)받게 된다.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966 농가가 지원받았으며 해마다 5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농협을 통한 농작업 대행 지원도 지속된다.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협에 장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여성농업인 등 농업기계화에 소외된 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왕궁·서익산·금마·여산 농협이 선정됐으며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을 구입하고 다양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밭작물과 논 대체 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장기 임대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운·정지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한 후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기종별로 약 5~8년까지이며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20%를 내용연수 기간동안 나누어 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했던 농기계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액으로 인수도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제9대 군산시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소통과 협치로 제9대 원구성을 마친 후 처음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간담회 15건,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 심의 등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도심 전체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불투수성 포장은 빗물을 땅 속으로 흘려 보내지 못해 지하수 저감과 도심 온도상승 등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투수블록은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포장공법에 사용되는 투수가 가능한 블록이며, 보도포장 선정은 지역특성과 보수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수성 포장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산시도 개별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장에는 잔디블록으로 포장하고 보도의 경우에는 투수블록 등을 시공해 도시형 홍수피해를 저감시키고 열섬현상을 완화해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처와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제9대 군산시의회는 협치와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뿐 아니라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신뢰받는 시민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제9대 익산시의회 개원, 의정운영방향 발표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은 12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익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리며, 제9대 전반기 의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 과제를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본회의, 상임위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나가겠다.

또한, 시민들이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와 함께 상호협조하고, 예산낭비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호소에 빠르게 반응하고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주민이 직접 참여·결정하는 주민조례청구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성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대-군장대, 군산형 맞춤 우수인재 양성 맞손

상호 협력 · 지원 협약 체결

군산대학교는 12일 대학본부 제1 소회의실에서 군장대학교와"상호협력·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양교가 협력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고등교육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을 약속했다.

군산대학교는 12일 대학본부 제1 소회의실에서 군장대학교와"상호협력·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양교가 협력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고등교육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에서는 이장호 총장, 이호근 교무처장, 엄기욱 학생처장, 정동원 기획처장, 고석인 입학처장, 장민석 산학협력단장이 참석하였고, 군장대학교에서는 이계철 총장, 손승건 교학처장, 이건엽 산학협력단장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골자는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혁신적 교수 및 학습법 공동연구, 우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공유,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이다.

이번 협약은 군산대학교가 국가·지역전략산업과 첨단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인력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군산대학교는 현재 지역인재 유출과 지역소멸 가속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타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교는 각 대학의 특성과 연계된 교육혁신과 협력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 등 군산형 일자리 맞춤 공동교육과정 개발, 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교의 협력사항은 지역의 현안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는 만큼,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시 · 도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익산시는 도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12일 전라북도 도의원(김대중, 김정수, 윤영숙, 한정수 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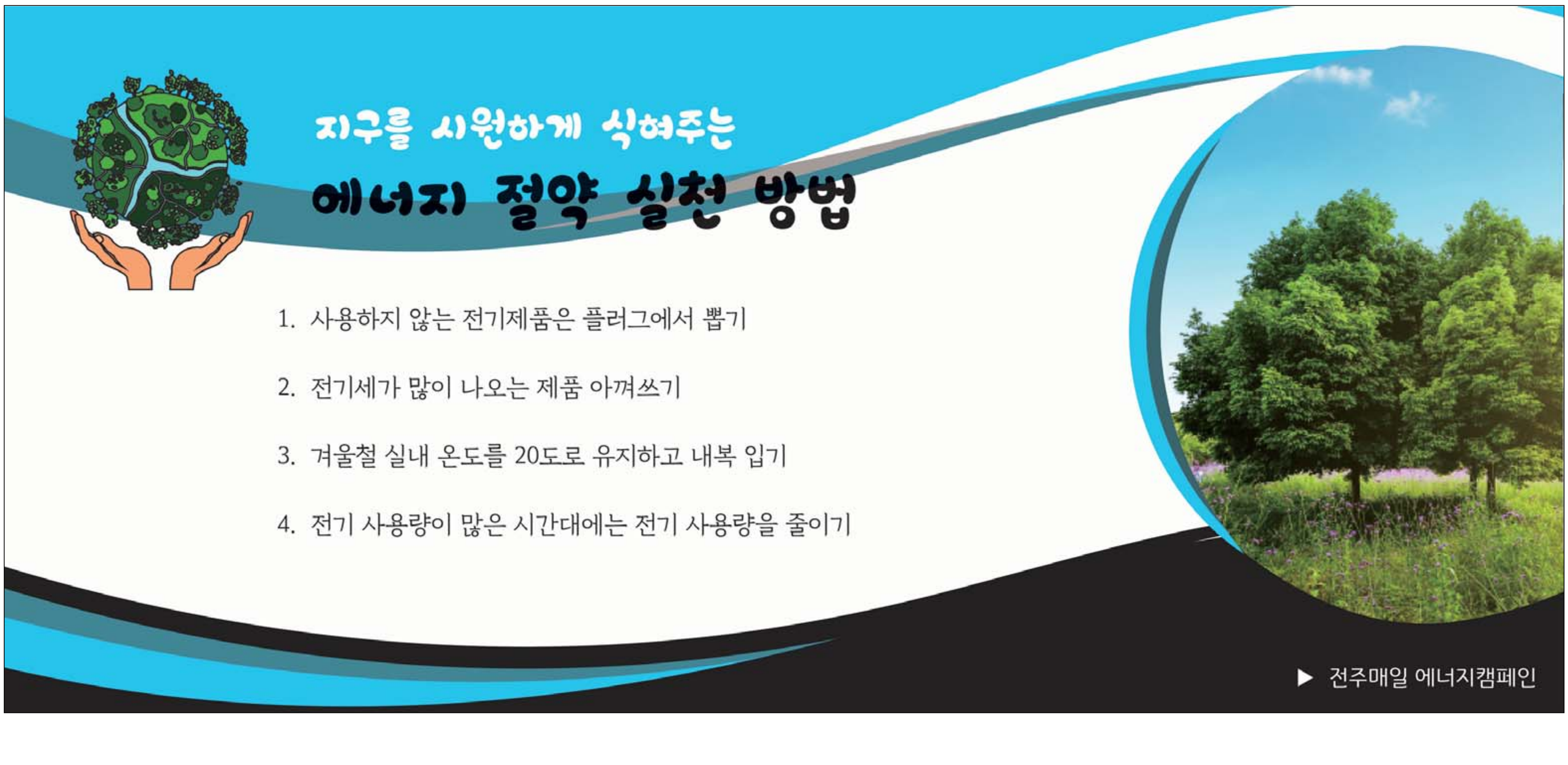
간담회에서는 △교육기관 시민이용 활성화 △공예체험 전시관 조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지방도 706호선 도로확포장 등을 건의했다.

정헌율 시장은 "민선 8기에도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활성화 추진

군산시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현재 개방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등 144종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현행화와 오류데이터 개선 등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15일간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데이터의 인지도, 활용도, 관심분야 등이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상시 수요조사 창구(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교통,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100건의 파일데이터와 44건의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